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5-03호 / 2월 28일

農民工 부족현상의 현황과 시사점(2)

3. 民工荒의 원인 분석

□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일반 노동자의 부족의 근본 원인

- 임금수준은 낮고, 노동강도는 높고, 작업환경이 열악한 노동집약형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함. 특히 월 700元 이하인 기업의 경우 구인난 심각
- 주장삼각주 지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월급여수준이 단지 68元 인상되어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광둥성과 복건성의 실질임금은 정체 혹은 다소간 하락
- 광둥성 민공의 월평균 임금은 장강삼각주 지역에 비하여 약 160元 낮은 수준임 → 최근 들어 민공의 선호지역이 주장삼각주에서 장강삼각주로 전환
- 2004년 12월 이전에 최저임금 기준은 廣州 510元, 동관 450元, 복건성 泉州 350元, 심천특구(개인부담사회보장비 제외) 388元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낙후한 山西나 江西省의 최저임금기준인 520元보다도 낮음.
- 2004년 12월부터 광주시는 최저임금기준을 월 684원으로 인상하였고, 동관시는 2005년 3월부터 574원으로 인상예정[《中國經營報》2005.2.21]
- 통상적으로 상기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집약적인 기업 특히 “三來一補”¹⁾ 기업

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외에 추가근무 수당이 있지만, 추가근무 급여가 규정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. 대략적으로 국제비교를 해보면, 멕시코와 말레이시아의 1/4, 미국과 일본의 1/40 수준임.

- 복건성 晋江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민공의 심리적 최저급여 수준은 1일 10시간 근무, 월 600원이나, 실제 해당지역 노동시장에 나온 모집조건은 1일 12시간, 월 500원 수준이 대부분

- 열악한 근로환경

- 고용관계의 규범화 미비 및 유관 노동자의 권익침해 현상 심각
- 2003년 말 심천시의 기업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40%(653개)가 약 10여 만명 노동자의 임금 1억원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이들 기업은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신분증을 압수하거나 1~2개월 임금을 저당하는 사례가 많음.
-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0~12시간이며, 노동법에 따라 연장·휴일·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. 따라서 높은 이직률 초래 (동관지역 평균 이직률은 10% 수준이며 모직이나 완구업종의 이직률은 20~30% 수준)

□ 기업의 노동력 수요 급증

- 민공의 주요 수요지역인 광둥성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 급증을 초래. 심천은 최근 3년간 외지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연 10% 상승
- 한편 중서부 내륙지역(강서성, 안휘성 등)에서도 기업설립 증가 추세
- 이에 따라 중서부 지역 기업의 임금수준이 상승하고 최근 농업소득도 상승하면서 외지노동자와의 소득격차 감소. 이는 또한 동남부 연안지역으로 나가는 농민공의 기대소득,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는 효과 초래

□ 일부기업은 과거 노동력 공급과잉 상황에 익숙하여 임금수준 인상이나 작업환경 개선에 소홀

- 아직도 1억 5천만명의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이 존재하고 매년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, 농민공 분포 혹은 공급에 대하여 학계와 정부기관의 일부 연구는 여전히 “농민공 공급이 풍부”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.

□ 농민공의 연령별 공급상황 변화 및 교육수준 향상

- 90년대 초반 풍부한 노동력 공급은 7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자들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며, 반면에 2000년대는 80년대 계획생육(計劃生育)이후 세대에서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족현상은 당연

□ 기능공 부족(技工荒)의 원인

- 기술교육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교육체제와 기술인력 부족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교육과정 ⇒ 일반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59.7%에 불과

-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교육·훈련투자 열악

- 2004년 4월 중국 40개 도시의 기술인력에 관한 표본 조사에 의하면, 기업의 교육·훈련비용(2003년)은 195元/人에 불과,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수준 즉 임금총액의 1.5%에도 미달하고 있음.

-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체제, 인센티브 체제 및 이동체제의 미완비

- 생산성 및 업적 보다는 연령, 경력, 신분 등에 따라 기술인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. 또한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취약하며 기술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저해하는 외부적 환경요인이 존재함.

4. 시사점

□ 단기적으로 일부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농민공의 임금은 인상될 전망

- 일부지역에서의 民工荒 현상은 노동력에 대한 유효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임금수준이 월 700~1000元인 기업의 경우 구인난의 문제가 없음.
- 한편 최근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농민공의 최저생활비도 증가함에 따라, 농민공의 임금인상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부문 생산비용 상승 →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이 전망되고 있음.
- 2003년 10월부터 농산물 가격인상으로 농가의 소득증가를 초래하였고,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교육수준이 향상됨으로써 도시로의 이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였음.

□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 구조의 변화 초래

- 장강삼각주 지역은 주장삼각주와 비교하여, 농민공의 임금수준, 공상보험·의료보험 등 농민공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함에 따라 최근 들어 농민공의 선호지역이 되고 있음.
- 주장삼각주는 民工荒, 장강삼각주는 기능공 부족의 技工荒 문제가 심각함.
- 한편 여타 지역의 경제도 점차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, 농촌노동력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음.
- 종전에 주장삼각주, 장강삼각주로 나가던 농민공이 최근에는 강서와 안휘성 등 중서부 내륙지역으로도 진출

□ 향후 종전에 비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실시 전망

- 舉手투표가 불가능한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떠나는 형식을 통해(用脚投票²⁾) 기업 및 해당지역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함.³⁾ (***)

- 1) “三來一補”는 위탁가공, 제품조립, 샘플가공과 보상무역
- 2) 발로 투표(用脚投票, voting with their feet)한다는 것은 원래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소위 티부가설(Tiebout hypothesis)에서 나오는 개념임. Charles Tiebout는 高지방세-高공공서비스정책과 低지방세-低공공서비스정책을 실시하는 지역간의 선택을 선거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함(발로 투표)으로써 선호를 표시할 수 있고, 최종적으로는 지방정부간의 지출정책은 균형에 도달하여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티부가설을 발표
- 3) 본 자료는 《財經》2004年 25期, 《中國經營報》2005.2.21 및 《2005년: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》(汝信 등 主編, 社會科學文獻出版社, 2004年12月)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